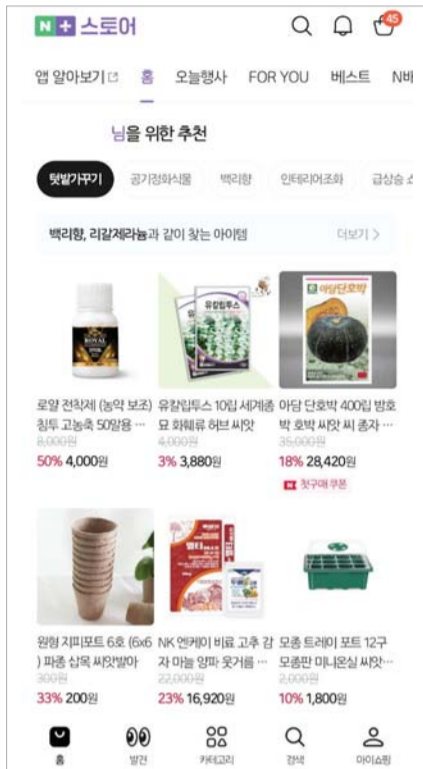


“이용자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판매자에게 ‘기회의 장’을”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론칭

이용자 분석해 개인화 상품 추천 ‘발견’ 탭으로 콘텐츠 경험 확장 알고리즘 제외 못해… 한계 존재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애플리케이션(AP)에 접속하자 제일 먼저 홈 화면에서 눈길을 잡아끈 것은 ‘쿠폰받기’였다. 단골 스토어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배포한 쿠폰이었다. 스크롤을 내리자 ‘관심있게 봤던 상품’이 나왔다. 보름 전, 기자는 봄을 맞아 식물을 구입하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까 하는 마음으로 네이버쇼핑에서 식물과 가구를 구경하고 장바구니에도 넣었다. 처음 보는 상품들도 함께 떴다. 기자가 관심을 갖고 보던 식물과 비슷한 식물이 ‘플랜테리어’라는 이름으로, 구입하려면 가구와 함께 배치할 만한 협탁은 ‘급상승 쇼핑’으로 제시됐다. 추천으로는 꽃씨와 함께 작은 화분이 떴다. ‘신기할 만큼 취향대로 뜨는구나!’ 하며 스크롤을 내리다 멈춰섰다. 실수로 누른 어린이용 마스크와 함께 어린이용 교구와 장난감을 판매하는 라이브쇼핑이 뜬 것이다. 기자는 아이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홈 화면.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를 전면 적용해 쇼핑 서비스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론칭했다. /캡처

13일 네이버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적용해 초(超)개인화를 목표로 한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직접 살펴본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단순히 개인의 장바구니와 구매 이력을 바탕으로 추천 상품을 제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트렌드와 취향까지 분석하고 있었다.

네이버에 따르면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이용자의 선호도와 구매 이력, 맥락, 의도 등을 분석해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제공한다. 또 현재 노트북, 휴대폰, 냉장고, 에어컨에 우선 적용 중인 AI 쇼핑 가이드는 사용성을 기반으로 맞춤 추천을 제공한다.

실제로 앱에서 ‘노트북’을 검색하자 AI 쇼핑 가이드가 뜨면서 ‘구매 TIP’ ‘디자인 작업하기 좋은’ ‘휴대성 좋은’ ‘사무용으로 적합한’ 등 노트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주로 고려하는 것들이 떴다. 구매 팁을 클릭하자 화면크기부터 해상도까지 구매시 고려할 점들이 간략하게 설명됐다.

김주관 네이버 쇼핑 프로덕트 부문장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사용자가 자주 찾고, 다양하게 활용할수록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기반한 상품을

발견하는 경험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를 기점으로 쇼핑 플랫폼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상반기 중 쿼터머스를 도입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으로 판매자와 사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쇼핑뿐 아니라 콘텐츠 경험도 확장하기 위해 ‘발견’ 탭이 추가됐다. 발견은 개인화된 숏폼 콘텐츠 추천 서비스로, 스토어 앱 하단에 있는 ‘발견’ 탭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최신 트렌드의 인기 상품을 30초 내외의 영상으로 소개하며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요즘 뜨는 상품들을 탐색하다 바로 구매할 수 있다. 해당 탭에서는 개인의 선호나 구매 이력과는 별개다.

전반적으로 AI를 적용함으로써 쇼핑이 쉽고 간단해졌지만 한계도 노출됐다. 단 한 번이라도 누른 상품은 계속 화면에 표시되고, 이와 연계된 상품도 같이 노출되지만 이용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 여부를 표시하고 알고리즘에서 제외할 방법은 없었다.

발견 탭에 뜬 강아지 간식 상품을 클릭하자 다음 홈 피드부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은 계속해서 다양한 강아지 용품을 추천했다. 앞서 강아지 관련 용품을 전혀 구매해본 경험이 없어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어린이용품도 마찬가지다. 어린이용 마스크는 여전히 ‘OOO님을 위한 큐레이션’에 버젓이 뜨고 어린이를 위한 교구와 장난감들도 끊임없이 노출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고도화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기술 기반의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로 네이버가 지난 10여 년간 구축해온 쇼핑 생태계는 더욱 확장되고 이용자들의 쇼핑 경험 역시 한층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앱이 이용자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쇼핑의 즐거움을 주는 특별하고 소중한 탐험의 장소가 되고, 판매자에게는 AI라는 강력한 비즈니스 수단을 지원해 더 큰 성장의 기회의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 ICTK, 양자보안 기술협력 강화

AI 에이전트 ‘익시오’ 등 보안 강화 KMS 서버에 PUF 연내 적용 예정 PUF칩 탑재 유심 개발도 목표

LG유플러스는 ICTK와 함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비롯한 모바일서비스 보안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ICTK의 특허기술인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PUF)을 암호키 관리 시스템(KMS) 서버에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PUF는 반도체 칩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암호키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암호키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동일한 키를 생성해 해킹과 복제를 원천 차단한다. PUF로 보안이 강화된 시스템이 도입되면 LG유플러스의 AI 에이전트 서비스인 익시오 전화 통화도 한층 더 안전해진다.

나아가 암호키 생성에 양자난수생성기(QRMG)를 활용해 암호키 복잡도를



LG유플러스는 아이씨티케이(ICKT)와 함께 양자보안 기술협력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이정원 ICTK 대표(왼쪽)와 강종오 LG유플러스 기업서비스개발Lab장이 협력을 다짐하는 모습. /LG유플러스

높이면 제3자가 해독하기 어렵다. 암호키를 전송하는 과정에서도 양자내성암호(PQC) 알고리즘을 적용해 데이터 도청, 중간자 공격 등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익시오 사용자 고객은 스마트폰에 쿼터칩 등 별도 하드웨어가 없어도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통화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양사는 연내 PUF칩이 탑재된 스마트폰 가입자식별모듈(USIM)을 개발해 단말 내 보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 암호키를 별도 PUF USIM에 저장해 기존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LG유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사임

(카카오 창업주)

내달 포털사이트 ‘다음’ 분사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사진)가 건강상의 이유로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을 사임한다. 또 포털사이트 ‘다음(DAUM)’이 내달 분사된다.

카카오는 13일 김 창업주가 CA협의체 공동의장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2023년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경영혁신위원회 활동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앞으로 정신이 카카오 대표가 단독 의장으로 활동한다.

카카오에 따르면 김 창업주는 현재 방광암 초기를 진단받아 당분간 수술과 입원 등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미 정신이 대표가 그룹 전체 현안을 주도하며 전략을 세우고 수행 중인 만큼 경영상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



이다. 다만 김범수 창업주는 그룹의 비전 수립과 미래 전략을 그려가는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직책은 계속 수행한다. 국내외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빠른 의사 결정 및 실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는 포털·검색·콘텐츠 분야의 경쟁 심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카카오는 다음을 완전한 별도 법인으로 독립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김 창업주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창업주는 구속 101일만에 보석금 3억원 납부 조건으로 풀려났다. /김서현 기자

LG CNS AX분야 신입사원 모집

AX(인공지능 전환) 전문 기업 LG CNS는 오는 31일까지 AX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AI ▲클라우드 아키텍처 ▲클라우드 AM(앱 현대화) ▲DX(디지털 전환) 엔지니어 ▲ERP(기업 자원 관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디지털 마케팅 등 총 8개다.

AI 직무는 기술 분석과 검증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김현정 기자

KT-팔란티어, AX 사업 가속화 ‘맞손’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 합류 KT는 미국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AX(인공지능 전환) 사업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KT는 국내에서 최초로 팔란티어의 비즈니스·기술 전문가 파트너 네트워크인 ‘월드와이드 파트너 에코시스템’ 공식 멤버로 합류했다.

S&P 500 구성 기업인 팔란티어는 대규모 데이터 통합과 분석을 통해 정부

와 기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한다. 특히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최적화해 실시간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양사는 ▲금융업 등 국내 AX 시장 대상 공동 비즈니스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 협력 ▲한국형 AIP 부트캠프(AI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임직원 AI-데이터 역량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 /김서현 기자

워크데이, AI 에이전트 통합 관리한다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

인사·재무 관리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기업 워크데이는 자사와 타사의 모든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연내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는 AI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필수 핵심 도구를 제공한다. 인사 담당자는 기업 내 인사 업무에 사용되는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워크데이 자체 에이전트뿐 아니

라 다른 회사의 AI 에이전트까지 연동해 활용 가능하다.

이날 워크데이는 고객이 워크데이 에이전트 시스템 오브 레코드를 통해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도 올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고객사에 ▲기업의 모든 계약서를 분석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해내는 ‘계약 에이전트’ ▲유효하지 않은 급여 데이터를 찾아 업데이트하는 ‘급여 에이전트’ ▲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재무 감사 에이전트’ 등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워크데이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